

랜즈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전략 연구

조세환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설계·조경학과

Practical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through an Application of Landscape Urbanism

Cho, Se-Hwan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new urban ideal of regeneration. A book review highlights the emergence of new trends of urbanization in knowledge-information industrial society beyond the new town Ideal of the industrial society. The meaning of 'landscape' in landscape urbanism represents not the visual and decorative pictures, but the dynamic process in the context of changes and evolutions. Also, knowledge-information industrial society and landscape have a meaning in the same context of flow and process with changes of velocity. Finally, these key words convey a meaning with the new urban trends of urbanization in knowledge-information industrial society in the context of value-oriented characteristics of dynamics and process. Urban regeneration is emerging as the new urban ideal in the knowledge-information industrial society, beyond the new town ideal of industrial society. It is in the same context as landscape urbanism with respect to green infrastructure buildings and designs for the transformation of urban surfaces covered with concrete and asphalt into the ecological surface, and of the ecological surfaces into the cultural surface that could be communicated with human beings. This research revealed the six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as follows. The First, the strategies for the transformation of urban surfaces into ecological surfaces, the second, the strategies for the transformation of ecological surfaces into cultural surfaces, the third, the introduction of mixed and convergence land use, the forth, the transformation of former sites(e.g. military and factory) into urban parks, the fifth, the introduction of waterfront park zones that have the function of ecological and park-oriented mixed land use and, the sixth, the building and design of green infrastructure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 in CBD. These strategies call for the reforms of development laws and regulations to restrict building coverage ratio, building heights, and the introduction of park-oriented mixed zoning regulations. Another method for implementating the above listed strategies was the introduction of a strategic planning system instead of the traditional master plan system. This system uses a value planning approach and brand making by imagery. It is able to construct the meaning of an image and its creativeness directly.

Key Words: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Urban Surfaces, Green Infrastructure, Park-Oriented Mixed Zoning, Land Use Regulation

Corresponding author: Se-Hwan Cho,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070, Korea, Tel.: +82-2-2220-0274, E-mail: chosh3@hanyang.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적용한 도시재생적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특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나타나는 도시화의 새로운 특성과 양상, 또 산업화시대의 신도시 이상을 넘어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도시 이상과의 상관성 맥락에서 도시재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의 랜드스케이프의 의미가 도시를 대상으로 시각적, 장식적 차원의 정태적 풍경이 아니라, 변화, 진화 등의 맥락에서 동태적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식정보산업사회가 지식·정보의 흐름 등 가속적 변화와 과정적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사회적 특징에 따라 도시화도 형태와 기능 중심에서 흐름, 네트워크, 중심성과 결절성, 지표면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는 가치지향의 과정적, 동태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3자간에는 그 본질적 개념에 있어 상호 관통되고 소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화시대의 도시화에 대한 반성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도시이상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은 본질적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점유된 도시 경관관을 그린 인프라 구축과 디자인이라는 맥락에서 생태관에 문화를 도입한 문화관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일정한 패를 같이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적용한 8개의 도시재생전략으로는 도시가 자연과 역동적으로 소통하고 진화할 수 있는 생태관의 구축, 생태와 도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생태관의 문화관으로의 전환, 주택 및 상업지역에서의 그린 인프라 구축 등의 관점에서, 건폐율 규제, 높이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시 되었다. 또한, 도시이전적지의 공원화, 하천 등 도시위터프론트의 공원화 등의 전략에서 공원의 도시적 관입 및 확산과 더불어 공원혼합용도에 대한 도입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관관을 형성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 사회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전략계획체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특히, 이미지니어링을 통한 가치계획을 추구함으로써 기능중심의 도시화에서 가치창출과 브랜드형성 차원의 도시화로 진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모든 전략을 위해 기존의 경관, 토지이용 등 건축 및 도시개발 관련 각종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주제어: 지식정보산업사회, 그린 인프라, 도시지표면, 공원복합용도지역

1. 서론

본 연구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경분야의 새로운 지향좌표로 대두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20세기 산업화사회의 신도시 이상을 넘어,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의 새로운 도시 이상(urban ideal)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을까?라는 연구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성격 등에 있어서 이것이 조경분야의 새로운 철학 또는 실천 전략, 수단 등으로써 그 성격이 규정됨(배정환, 2006)에 있어서나 구체적 실천방안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상(Waldheim, 2008)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 마디로 규정되고 정의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이러한 실천들은 대부분 국지적 차원의 조경설계적 차원의 사례에서 거론되고 논의되기에 어바니즘 차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되고 있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그러한 함에도 불구하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랜드스케이프가 갖

는 의미가 단순히 정태적이고 시각적인 차원을 넘어 변화와 과정과 진화의 의미가 강조되는 동태적이고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흐름(flow)이 강조되고, 변화와 진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며(김묵한 등 역, 2003), 그것을 통해 가치를 생산하는 지식정보산업사회와는 개념이 관통되고, 상호적 관계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목받는다.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시 이상은 신도시를 넘어 도시재생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조세환, 2007). 도시재생은 도시 과밀, 환경, 문화, 경제 등 20세기 산업화시대의 도시화가 갖는 각종 모순을 지식, 정보와 창조라는 수단으로 도시를 경제, 사회, 환경, 문화, 예술적으로 재활성화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념이며, 동시에 목표를 갖는 개념이다. 도시를 형태(form)와 기능(function), 용도의 분리(division)를 특징적 개념으로 규정짓는 산업사회와는 다르게 도시를 변화(change), 과정(process), 가치(value), 혼성(hybrid)과 융합(convergence)으로 바라보는 지식정보산업사회의 어바니즘은 그 재생을 논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함의와 무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랜드스케이프가 갖는 동태적, 포괄적 의미가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어바니즘의 새로운 양상에 상응하는 주요 철학이자 실천 수단이라는 개념에서 이것이 지식정보산업사회의 특징, 또 그것을 바탕으로 탄생하는 어바니즘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조경의 어바니즘적 실천 전략으로서 21세기 도시재생과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 중 특히, 지식정보산업사회와 도시화의 특성, 도시재생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관통하는 주요 개념과 성격, 내용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들 간에 소통하고 있는 주요 핵심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이것을 기초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어떻게 도시재생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실천 전략들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II.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시화의 특성

1. 지식정보산업사회의 특성

지식정보산업사회¹⁾란 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이 급격히 증대되고, 정보기술이 고도화되는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정보산업사회의 특징으로는 첫째,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가치 증가와 함께 특히, 물리적, 제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시간의 흐름과 변화의 가속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빠른 시간의 흐름과 변화는 환경의 불확정성을 높이고, 따라서 전략적 접근²⁾(strategic approach)의 당위성이 성립된다.

셋째, 지식정보산업사회는 개인의 가용 시간 증대와 정보, 통신의 기술발전으로 말미암아 사람, 물자, 정보, 자본, 미디어 등에서 이동이 증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과 이동의 양적 증대와 변화의 가속화는 산업화사회에서와 같은 수직적 계층조직에서부터 수평적 판(horizontal surface)의 구축을 통해 웹과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 교류되고,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특징을 보인다.

넷째, 지식정보산업사회의 특징이 시간과 변화의 가속화에 있다면, 다분히 계획이나 설계에서의 "형태"의 가치는 "과정"의 가치로 대체되는 특징³⁾을 보인다. 이것은 변화가 가속될 경우 더 이상 형태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정의 가치가 증대되는 곳에서는 무엇을 담는 그릇보다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의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특징⁴⁾을 보인다. 따라서, 지식정보산업사회의 공간은 정채되어 있는 장소(place)가 아니라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묵한, 2003). 다섯째, 이상의 특징

을 바탕으로 지식정보산업사회의 지식과 정보가 상호 밀접하게 혼성되고, 융합되는 양상⁵⁾을 보임으로써 분할과 단절보다는 그 반대인 혼성과 융합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2.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시화의 특성

지식정보산업사회가 정보의 흐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가속화, 과정적 양상 등을 보이고 있다는 데서, 도시는 다분히 도시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도시중심지와 주변부의 새로운 사회·공간적 기능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공간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든 도시는 네트워크 망상에 있는 특징을 보이며, 도시는 중심성(hub)과 결절성(node)⁶⁾을 갖는 등 수평적 계층성(hierarchy)을 갖게 된다. 즉, 각 도시들이 네트워크화 된다면 기존의 수직적 계층으로서의 중심성을 갖던 도시체계는 결절성과 수평적 접근성을 갖게 되는 구조로 변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도시 경쟁력의 정도는 위치(location)⁷⁾ 그 자체보다는 정보 흐름의 양을 증대시키는 정보의 결절 정도와 정보 통제권한 등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산업화사회의 도시에서 인간관계는 도로망 등의 공간중심이 었다면, 지식정보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시간중심으로 변화한다. 또한, 사회의 생활축이 정치·경제 축에서 문화의 축으로 이동하며, 도시의 공간구조가 물리적 형태 중심의 정태적 공간(행정의 단위, 정치의 단위)에서 비물적 또는 과정의 동태적 공간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도시화는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구조에서 정보, 자본, 물자, 유기체 등의 흐름을 통해 네트워크 선상에 있는 다양한 공간에 분산되는 구조의 특징을 보이며, 도시의 외연적,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발전지향보다는 도시와 시민의 삶의 질적 제고를 중시하는 도시 내적 관리지향⁸⁾을 띄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시 형태는 산업사회에서처럼 단순히 형상들이 모인 집합이 아니라, 복합매체의 연결망이 그 기틀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도시기능은 구획된 기능공간들이 모여 이룬 모자이크형에서 다차원 기능필드의 그물망형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공간이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물리적 공간의 크기와 경계구조가 네트워크에 의해 점점 소멸하여 중심지가 없는 도시⁹⁾(신기철, 1998)로 진행되어 갈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시는 더 이상 지형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형상을 그리지 않는다(Valeur, 2005). 즉, 도시는 경제의 흐름¹⁰⁾에 따라 그 지형을 다르게 그리게 되는 특징을 보이며, 특정 공간 또는 지역이 주거, 업무, 상업 등의 복합적 활동성 여부에 따라 중심성 또는 결절성으로서의 기능적 역할

이 증대되면 도심, 부도심 등 기존의 공간구조와 관계없이 그 공간은 경제 등의 측면에서 활성화가 창출¹¹⁾ 되는 특징을 보인다.

III.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도시재생의 연결고리

1.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과 내용

도시에 대한 조경분야의 새로운 전략과 실천 영역(Corner, 1999)으로서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21세기 지식정보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술한 새로운 도시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며, 동시에 실천전략과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진화된 새로운 전문분야로서 다가오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정보산업사회는 지식과 정보, 커뮤니케이션, 교통, 자본, 미디어, 사람과 물자 등 도시공간에서의 이동은 흐름의 극대화를 가져왔다. 도시화에 있어 흐름의 증대는 전통적 산업화시대의 공간적 경계와 형태를 중시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로 변한 것이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이와 같은 도시화의 새로운 양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골격으로서 경관(landscape)의 새로운 개념을 차입한다. 즉,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 사고에 올려놓고, 경관을 목가적, 시각적 관점에서 바라본 산업화시대의 경관 개념에서 첫째, 경관을 변화와 과정 그리고 진화의 장으로서 생태(ecology)로, 둘째, 경관을 인간과 자연의 혼성에 의한 문화(culture)로, 셋째, 경관을 변화하는 도시의 뼈대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의 경관의 통합적 개념은 건축, 공원·녹지 등의 다양한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를 포함한 각종의 인프라스트럭처와의 혼성을 통해 '변화(change)', '형성과정과 진화를 수용하는 매트릭스 장(field of matrix)' 또는 유동체(terra fluxus)(Waldheim, 2005)로서 받아들이고, 경관을 도시 미래 예측의 전략적 축패로 삼으며 중국엔 경관을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로 간주한다.

이러한 개념은 도시를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에서의 경관¹²⁾의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진화하는 실체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워싱턴 주립대학교 조경학과와 Hill(2005)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경관생태학적 이론을 적용한 도시설계 수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21세기 탈장르화의 추세와 함께 경관을 주제로 조경, 건축, 도시분야의 혼성으로서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시만들기의 주도적 패러다임으로 또, 이론과 실천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의 공원과 녹지,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다양한 그린 인프라

라는 도시 지속가능성의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종래의 장식적 자연의 역할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조세환, 2007)의 기본이고 또, 전략적 도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자리매김한다. 이것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바로 조경과 건축, 도시의 혼성 영역으로서 특히, 도시화의 새로운 양상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래 발전을 이끌고 유도하는 도시전략이며, 21세기적 코드(배정한, 2006)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주장에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현대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는 실천 주제로 Corner는 도시와 경관의 불확실성, 비종결성, 혼합성 등과 같은 성격을 강조하는 과정, 수평적 관, 생태성, 상상력(imaginary) 등(Waldheim, 2006)의 요소들을 들고 있다¹³⁾. 특히, 그는 상상력을 설명하면서 어떤 공간적 경험을 통해 추억과 야망, 또 그를 통해 새로운 사회와의 관계와 가능성을 찾는 지리적, 사회적 상상력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세환(2007)은 이러한 상상력은 이미지니어링(imagineering)¹⁴⁾으로서 현실화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이미지를 상상하고, 시·공간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2. 도시재생의 개념, 관점 그리고 내용

1)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 개념의 발생 배경은 산업화사회의 도시화에 대한 반성과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래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즉, 영국, 미국 등에서 195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 확산으로 인한 도심상권의 약화, 도심부 쇠퇴로 인한 소외와 범죄, 실업률 증가와 같은 도심부지역에서의 경제, 사회문제 및 도시 활력 저하로 인한 도시의 경쟁력 약화와 같은 문제(오덕성과 김영환, 2004)에서 그 배경을 찾고 있다. 이것은 도시재생의 개념을 대체로 도시외연 확산 방지 차원과 도심공동화 등 도심이라는 한정적 공간을 대상으로 도심부 쇠퇴현상 극복을 통한 중심지 도심기능 회복(황재훈 등, 2002; 최덕철 등, 2006; 서울특별시, 2000)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도시의 중심업무지역을 포함한 오래된 도시지역을 새롭게 재개발하거나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도시재개발로 정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물리적 측면에 사회·경제적 재구조화까지도 포함될 경우를 도시재생(최덕철 등, 2006)의 개념 범주로 본다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산업화시대의 도시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세기에 들어와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생태적 이상(ecological ideal)을 추구하게 된다(Tuan, 1974). 그러나 이러한 생태적 이상을 현재와 같이 이미 완벽하게 도시화된 기성 시가지에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생태적 도시 이상을 두 가지 방향으로 추구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신도시(new town) 건설이고, 둘째는 교외형 도시¹⁵⁾

건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선진 각국은 이러한 신도시 건설과 교외화 도시이상은 또 다른 자연의 파괴와 토지 자원의 한계, 기존 도시인구의 외곽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쇠퇴를 비롯해 교통, 환경 등에서 많은 복합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세기 후반부터 기존 도시를 개조하여 다시 활용하자는 이른바 도시재생 이상(ideal of urban regeneration)이 대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도시재생의 관점과 내용

도시재생의 개념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첫째 그 개념의 구체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관점이 있다. 도시는 물리적 형태와 비물리적 현상들의 변화에 의해 유기체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을 도시 정체성(identity)의 유지와 함께 새로운 이미지 확립(황재훈 등, 2002)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보다 추상적 비전으로 보는 시각이다. Roberts(2000)는 도시재생을 '일정 도시지역에서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 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즉,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그리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재생을 구체적인 도시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즉, 도시문제를 주택, 도로 등 도시 인프라스트럭처의 양적 공급에의 치중, 환경의 질에 대한 처방 부족, 고밀의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비인간적 도시공간의 형성, 도시의 스카이라인 파괴 등 도시의 무질서와 혼돈 초래, 공원·녹지 등 도시 그린 인프라의 상대적 부족, 자연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열악한 도로교통과 보행환경의 악화, 도시의 전통과 역사 문화공간 부재로 도시 정체성 부재, 도시 공공장소 및 문화공간 빈약,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빈약 등 구체적, 물리적이고 형태를 중심으로 찾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도시설계를 통하여 기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사람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도록 하자는 것(신동진, 2007)으로 도시재생을 개념 정의한다.

셋째, 도시재생의 공간적 범주의 설정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기존 도시문제를 도시 외연 확산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 등 도심기능 쇠퇴의 시각으로 볼 경우에는 도시재생의 공간적 범주가 도시 중심지, 즉, 도시에 국한된다. 그러나 산업화사회의 도시화의 양상에서 비롯된 각종 도시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관점에서는 도시의 중심과 외연을 포함한 전 도시지역이 도시재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공간적 범주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의 실천 전략으로서 도시 외연의 확산관리 차원의 '성장관리형'과 도심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형'으로 구분¹⁶⁾ 하지만, 도시재생을 성장관리형 도시재생과 시가지 도시재생을 포괄한 '성장형 도시재생'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도

있다.

넷째, 도시재생을 도시 및 국가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일본에서 토지가격을 부양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한다는 경제정책 목표와 낙후된 일본의 도시환경을 개조하여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도시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특히, 일본은 '동경세계도시론', '도시간 경쟁론' 등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관념 속에서 도시재생의 개념을 읽을 수 있다(박세훈, 2004). 결국, 일본의 도시재생은 세계화, 지식정보산업사회, 신자유주의 경제 등 범지구적 사회의 포괄적 변화에 따른 도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3. 랜즈케이프 어바니즘과 도시재생의 연결고리

앞장에서 논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과 도시재생은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시화의 새로운 양상과 특성에서 상관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양자 간의 연결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도시환경을 재생한다는 맥락에서 경관(landscape surface)으로서의 생태성 회복을 들 수 있다. 도시환경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특히,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물종다양성, 기후변화대응, CO₂ 저감 등의 화두를 감안할 때, 기존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점철된 도시판(urban surface)을 생태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또한, 과정, 진화 등의 작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생태성의 회복은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에서 얘기하는 경관관을 이루는 하나의 필수조건이 될 수 있다¹⁷⁾.

둘째,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이나 도시재생 모두 문화에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에서의 랜즈케이프는 생태 그 자체에 더하여 도시적 삶의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도시재생은 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중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셋째,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에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재생에서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서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도시재생에 있어 도시경관 인프라의 구축은 도시의 다양한 이미지와 경험, 그로 인한 브랜드와 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에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넷째, 혼성과 융합을 기본언어로 하는 복·융합화는 도시재생과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을 관통하는 핵심언어이다. 흐름, 과정, 네트워크, 다양한 판의 조합 등을 기조로 한 21세기 도시화의 특성이 다양한 용도간의 복·융합화로 나타나고, 이것은 동시에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을 이루고 있는 주요 내용이 되

고 있다.

다섯째, 21세기 도시화의 특성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내용이 다양한 흐름의 증대, 급격한 변화와 진화에 부응 할 수 있는 전략계획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계획은 뉴욕의 프레스 킬스, 토론토의 트리 시티 등 주요 공원계획에서 많이 출현하고 있는 요소이다.

IV.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도시재생적 실천 전략

1. 도시판의 생태판으로의 전환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도심과 주변, 도시와 교외와 같은 공간적 경계를 넘어 하나의 도시판으로서 도시 그 자체를 다시 살린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도시재생적 실천 전략의 첫 번째로는 경관생태학에서의 경관 개념을 도입하고, 다시 도시를 하나의 경관판으로 파악하며, 경관 자체를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로 간주하여 20세기 도시화가 빚어낸 지속불가능성의 도시판을 지속가능성의 생태판(ecological surface)로 되돌리는 일이다.

이것은 기존의 공원·녹지, 광장 등 도시 오픈스페이스는 물론 도시판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 도로, 교량, 항만 등 모든 도시적 인프라가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도 이용 가능한 생태적 과정과 진화를 수용하는 지속가능성의 그린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함을 의미한다. 도시판의 생태판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 사항으로는 첫째, 생태판으로서의 그린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과제이다. 도시 공간에서 생태판의 확보는 특히, 기존의 각종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사항 중에서 건폐율의 축소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토지이용의 고밀화, 입체적 토지이용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건폐율에 대한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건폐율의 제한은 같은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높이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같은 용적률을 보장하면서도 높이 제한을 자유롭게 하면 상대적으로 건폐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도시 구조물의 토지이용의 녹지·생태적 기능을 높이는 실천이 필요하다. 즉, 도시의 각종 인프라의 바다, 지붕, 벽면 등을 녹지로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혼·융합하는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생태판의 문화판으로의 전환

도시의 생태판으로서의 그린 인프라는 도시의 역동적 변화를 수용하고 진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연과 도시적 인간의

삶을 담는 혼성적 실체로서 문화판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원·녹지가 산업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레저·레크리에이션, 웰빙, 교통 등 2개 이상 용도의 도시적 기능과 혼성되어 그 사회의 역동적 변화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공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건축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과 그린 인프라와의 만남을 이분화하기보다는 폴딩(folding)을 통해 문화 에코톤(cultural ecotone)¹⁶⁾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판은 도시공간에서 각종 흐름을 조장하고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기능하여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공원·녹지 등의 도시 생태판으로서의 오픈 스페이스 주변 지역은 그린 인프라 구축 맥락에서 도시 외연으로 생태판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원·녹지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 높이 규제, 건축선 후퇴 등으로 규제하는 행위는 생태판을 도시판과 분리된 섬으로 만드는 조치가 됨으로써 주변 도시판과 오히려 격리 분할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공원·녹지 등의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은 감소시키되 높이는 자유롭게 하고,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상업, 문화 등 다른 도시 기능과 혼성되는 혼합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철저히 주어, 상업, 공업, 문화 등과 격리토록 하는 기존의 도시 및 건축 관련 법령 및 각종 규칙 등의 산업화시대의 유산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도시 인프라의 경관 인프라로의 전환

도시의 교통 및 도로, 철도 등 각종 구조물과 시설물 등은 단순 기능적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도시의 생성과 진화를 수용하는 매트릭스 장의 구성요소로서 경관 인프라(landscape infrastructure)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는 특정한 기능의 단일 프로그램을 담은 구조물로서 결정되기보다는 미래의 개발 변화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과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배정한, 2006). 특히, 도시의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는 다른 도시 기능 및 용도와 혼성을 통해 경관 인프라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도시철도 유희부지의 생태공원화, 기존 고가도로 상판하부의 문화공간화, 도시보행공간의 입체적 문화공간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도시 전체 또는 국부적 외부공간과 상호 소통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을 사회적 변화에 적응시켜 나갈 수 있는 체계로서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엔 건축물은 도시라는 체계의 작은 판(surface)으로서 작동하는 경관 인프라스트럭처이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기존의 각종 법과 규제를 뛰어 넘는

차원의 혼성 전략이 필요하다. 도시 내 일어나는 각종 흐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주거, 공업, 상업 등의 단일적 기능의 토지 이용을 규정함으로써 특정의 용도를 고집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혼성적 개념은 고가도로와 건축물의 혼성, 건축물과 건축물의 가교적 연결 등 지하, 지상, 공중의 입체적 토지이용 및 구조물의 혼성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 모든 것은 도시관이 변화를 수용하고, 진화를 유도하는 경관 인프라스트럭처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원복합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입

산업화사회의 전통적 토지이용의 특징은 분리와 단절에 있으며, 농촌과 도시, 자연과 도시, 공장과 농지, 공장과 주거, 주거와 상업 등의 분리가 그러하다. 이러한 토지이용은 도시공간을 이분법으로 정의하고 구획하며, 좋은 곳과 나쁜 곳을 가리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흐름과 과정이 중시되는 21세기 도시재생은 토지이용의 혼성화가 요구된다(조세환, 2007). 예컨대 주거, 직장, 쇼핑, 유희, 자연, 문화,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등 모든 용도와 기능의 토지이용 및 시설이 하루 24시간의 이용의 개념으로서 혼성화되는 상황이나 용적률과 건축 높이 규제, 분리, 용도지역제의 유연화, 용도와 밀도관리의 분리, 복합용도지역의 도입(김용성과 이희정, 2005) 등도 그러한 맥락이다.

도시대형공원 및 도시하천 등 공원 및 녹지로서 대규모 생태관이 구축되고 있는 주변부에 대해서는 이 관을 중심으로 주변부의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 공원 중심의 용도에 타 도시적 기능을 혼성하는 이른바, “공원복합용도”의 지역 또는 지구를 지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공원복합용도를 위한 공간의 규모, 위치, 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에 좀 더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이 용도의 기본개념은 기존의 대형공원 및 하천 등과 같은 녹지를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패치로 보고, 이 패치의 주변부를 공원용도를 중심으로 한 주거, 문화, 상업, 업무 등 다양한 복합용도로 지정함으로써 이 지역을 자연과 도시가 혼성하는 문화 에코톤지역으로 보자는 시각이다. 이러한 용도혼합지역의 유용성에 대해서 Jacobs는 공간의 집약적 활용과 토지의 활성화에 매우 유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유강은 역, 2010). 한편, 공원복합용도지역은 대형공원 또는 녹지의 규모에 따라 다시 외곽부에 가칭, 제1차 구역, 제2차 구역 등으로 구분하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전폐율을 높여 나감으로써 생태관이 도시관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는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이와 같은 공원복합용도 도입 전략은 도시하천의 워터프론트를 하나의 생태관으로 간주할 것을 종용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도시하천을 하나의 선으로 보고, 양안의 단순한 경계로서 작동되어온 것을 부정하고, 하천은 그 자체가 도시를 구성

하는 하나의 관으로 작동한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이 생태관은 인접한 강변의 다른 기능의 도시관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화 에코톤¹⁹⁾ 지역으로서 도시와 하천이 분리와 단절 그리고 단순한 경계의 선이 아닌 연결과 완충의 공간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조세환, 2008)

이와 같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경우,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제외지는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생물서식지 중심의 생태관으로 회복시키는 실천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제방 또는 제외지에 있는 각종 도로들은 우회, 공중화, 지하화시키고, 대신 이 공간에 생태관과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도시관과 혼성시킨 공원중심의 문화관으로 조성하는 실천이 필요하다²⁰⁾. 셋째, 이 문화관의 외곽지역으로 하천의 생태관이 도시관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하천에는 인공섬 등의 다른 기능관을 도입하여 하천이 주변 도시 양안의 문화융합관이 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문화융합관은 도시의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문화, 예술, 업무 등이 물과 제조된 자연과 혼성되어 도시의 랜드마크 및 브랜드로서 작동되게 된다.

5. 도시 이전적지와 훼손지의 공원화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의 새로운 도시화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의 각종 이전적지와 훼손지²¹⁾ 그리고 빈 공간은 그 지역의 새로운 ‘생태관’과 ‘문화관’으로 재생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도시의 이전적지는 그 주변 지역과의 기능 부조화 또는 흐름과 소통의 장애, 토양오염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전적지는 기존과 같이 주거, 행정 등 도시 시설의 채우기 중심에서 생태와 문화 재생을 위한 공원조성의 전략적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맹치영과 조세환, 2009). 특히, 이전적지가 생태관과 문화관으로 매김될 때, 주변 지역에 공원복합용도를 지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태관과 문화관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6. 주거지 및 중심상업지 등의 그린 인프라 구축

20세기 산업화사회 도시화의 맹점은 바로 인공물에 의한 도시지역의 피복 그 자체에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이전의 전통주거형태가 단독주택이었다면, 산업화시대의 주거형태는 저밀 연립 및 아파트로 대표된다. 결과적으로 도시지역은 교통은 물론이고, 에너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으로써 물리적 환경에 대한 도시재생의 전략으로서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Transportation Oriented Development: TOD) 등의 지속가능하고 짜

임새 있는 도시 형태를 개발하고 보행자공간의 확충, 복합용도 개발의 활성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에서 저층 저밀의 주거형태는 도시의 생태관을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연과 레저, 문화와 같은 환경의 난맥상을 보이게 된다. 지금까지 수행된 서울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의 도시복합용도개발 사례를 보면 건폐율이 26~55%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옥연, 2007). 생태관과 문화관을 구축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경우, 저층 저밀의 형태에서 고층 고밀의 형태로 건폐율을 획기적으로 줄이되 높이를 자유롭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니면, 저층 저밀지역에 옥상, 벽면, 도로 등에 대한 대대적 녹화전략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상업지역 등의 복합용도 개발에서도 건폐율을 줄이고 층고의 제한을 해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²²⁾. 동시에 생태관으로서의 자연과 문화와의 혼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정체성 확립을 통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가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7. 이미지니어링을 통한 가치계획 체계의 도입

농경사회의 농업생산 산업사회의 제품생산과 서비스생산을 넘어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는 경험생산의 경험경제(experience economy)(Valeur, 2005)로 진행된다. 경험경제에서는 경험의 다양성과 질 유무가 가치를 생산하는 수단과 전략이 되기 때문에 도시를 경험의 매체공간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도시를 경관으로 수평적 관의 배치와 조직화 그리고 지상, 지하, 공중으로의 입체화와 각종 생태적, 미적 기능과의 혼성은 하나의 경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효하고, 이것은 고도의 상상력을 요구한다.

고도의 상상력은 고도의 이미지니어링을 통해 가능하며, 다양한 경험과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것은 도시민 및 관광객에게 도시에서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며 동시에 도시를 브랜드화시키고, 도시가 활성화됨으로써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 이미지니어링을 통한 도시 가치계획(value planning)은 도시로의 흐름을 조장하여 네트워크화된 도시사회에서 중심성 또는 결절성으로서의 기능을 증대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가 번성하게 된다. 이미지니어링은 특히, 도시의 다양한 기능들이 공원·녹지 등 다양한 그린 인프라로 구축된 도시의 생태관과 혼성되어 특정의 총체적 문화²³⁾로서 창조될 때 도시 경험의 폭과 깊이가 늘어나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도시를 더 높게 된다.

8. 전략계획의 도입과 분야간 혼성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도시관을 시간에 따른 흐름을 조

장하고 유도하는 과정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시간을 상정하고, 상정된 그 시간에 완성을 계약하는 산업화시대의 전용물인 기본계획(Master Plan)적 접근보다는 시간의 경과와 사회, 환경, 문화적 변화와 진화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것을 선택 또는 수정해 나가면서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계획으로서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략계획은 시간, 변화, 과정, 진화 등의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공간적 형태보다는 이벤트, 프로그램 등의 설정과 도입이 더 중요한 계획 고려 요소가 된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볼 때, 전략계획은 형태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오브제 중심에서 이벤트 및 프로그램 생산과 담기 중심의 시나리오 작업으로 접근 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전략계획은 다양한 분야간 참여와 아이디어 내기, 계획 및 설계방법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건축물, 도로 등의 오브제로서의 기존 인프라가 생태관, 문화관 등에 융합되어 하나의 유연성 있는 도시관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간 전략적 테크닉을 통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지식정보산업사회, 도시화의 특성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고찰하고, 21세기 새로운 도시화의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도시재생의 실천전략 수단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지식정보산업사회가 갖는 지식, 정보의 가치와 함께 흐름, 네트워크, 수평적 위계의 관, 혼성과 융합적 특성과 부합되는 개념을 지니고 있어, 21세기 새로운 도시화 양상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고, 동시에 실천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21세기 도시화의 새로운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도시재생은 지식정보산업사회의 특성을 배경으로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개선에서부터, 도시의 경제, 환경, 문화, 사회, 예술 등 도시의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새로운 도시설계적 개념과 양상으로 출현되고 있었다.

셋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의 특징인 흐름, 과정, 관 등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랜드스케이프의 동태적 경관 의미를 도시설계에 적용할 수 있음으로써 도시재생의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개연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공원 등 소규모 부지의 조정설계적 차원을 넘어 도시 전역에 걸친 그린 인프라 구축과 디자인이라는 어바니즘 차원의 스케일로 소통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적용한 도시재생 실천 전략 8가지를 통하여 기존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구축된 도시관을 자연의 생태와 과정이 수용되는 생태관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조성된 생태관을 친숙한 문화로서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생태와 문화가 혼성되고 융합된 문화관으로 다시 전환하는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단일 용도지역을 공원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용도지역으로의 전환, 건폐율 규제의 강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 기존의 도시경관형성 및 경관관리전략과는 반대되는 역설적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형공원 주변부 및 도시하천 워터프론트 지역에 공원복합용도지역 지정과, 도시 이전적지의 공원화, 주거 및 상업지역의 그린 인프라 구축 등의 전략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이러한 전략은 이미지니어링을 통한 가치계획적 접근과 무엇보다도 기존의 기본계획 체계와는 다르게, 가속적 변화와 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요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학술적인 맥락에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도시재생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이론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실천적인 맥락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구체적 실천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천을 위한 연구 과제를 던져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는 첫째, 단일용도지역에 의한 용도분리제의 수정, 건폐율, 고도제한 규제 등의 각종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정과 지침의 개정 등이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련법, 건축법 등 도시, 건축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원복합용도지역 등 혼합용도지역에 대한 보다 실천적 연구에 관한 사항이다. 즉, 공원복합용도의 위치, 공간적 범위, 구조 등에 관한 것이다.

셋째, 생태관, 문화관 등의 구조, 프로그램의 도입과 구축에 대한 실천적 모형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모형은 그것이 처한 도시적 상황과 도시민의 사회, 문화적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1. 정보화사회라는 용어는 196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A. Toffler는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는 상상력을 포함한 정보로 정의하고, 상상력과 정보를 통해 여러 가지 소모성 자원들의 대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 2. 전략적 접근이란 고정된 상황을 초월하여 변화의 상황(시간과 공간적 맥락)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 3. 산업화사회에서는 "형태(Form)는 기능(Function)을 따른다."라고 하였지만,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는 "형태는 과정(Process)을 따른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 4. 이러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이게 때문에 과정(Process)을 수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으로 대두된다.
 주 5. 오늘날의 스마트 폰, 스마트 TV 등은 이러한 혼성과 융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 6. 중심성(Hub)이 지식과 정보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기능의 공간 또는 장소라면, 결정성(node)은 중심성의 네트워크상 한 공간에서 중심성의 일부 기능 또는 직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중심성은 한 개 이상의 결정성을 거느리게 된다.
 주 7. 농업화사회에서는 토양의 질, 산업화시대에는 지형과 중심성이라는 공간적 위치가 경쟁력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지식정보산업사회는 돈, 사람, 소비, 경제 등의 흐름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발생하면 지형적 위치와 상관없이 중심성 또는 결정성 기능의 공간이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주 8. 도시관리 지향적이란 도시재개발, 도시리모델링, 도시재생 등을 의미한다.
 주 9. 산업화시대의 전형적인 도시형태(도시 내부의 각 기능 간 상호작용 및 관련성을 설명하는 E. W. Burgess의 동심원 이론: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등)는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 10. 도시의 지형도는 돈의 고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수입과 지출이 있고, 시장 잠재력이 있는 곳엔 정장부가 형성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최저부가 형성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주 11.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레저, 레크리에이션, 자연, 건강 등의 행방 등이 혼성 또는 융합되어 그 지역의 활동 밀도가 높아지면, 그 지역은 활성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양한 도시적 용도들의 혼성은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는 도시 삶의 기능 범주를 넘어 가치 창출의 요소로 대두되는 특성을 보인다.
 주 12. 산업화사회에서는 도시를 변화나 과정보다는 형태중심으로 바라보고, 조경에서의 경관 개념 역시 스키어리안, 통경축, 조망점 등 시각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는 변화의 가속도가 빠름으로서 흐름(Flow), 과정(Process)과 같은 역동적 변화가 중시되는 사회적 특성을 보이고, 따라서 경관을 경관생태학에서처럼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정적 실체로 바라본다.
 주 13. James Corner는 수평적 관(surface of horizontality)의 조직(분할, 배치, 구성 등)과 흐름의 과정(process)으로서의 시·공간적 조직을 위해 고도의 상상력(imaginary)이 필요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주 14. 이미지니어링은 Image+Engineering의 합성어로서 이미지를 시공한다(construction of image)는 의미를 지니는 신조어이다(Valeur, 2005). 두바이의 콰메이라 등의 해상주거단지, 두바이 빌딩과 스웨덴의 터닝 토라소 등은 이미지니어링의 진수를 보여주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 15. Tuan은 도시의 교외지역에서 자연과 도시가 적절하게 조화된 도시를 중간경관(middle landscape)으로 정의하고, 신도시와 교외지역을 이상경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 16. '성장관리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고, 반면 '도시재생형'은 영국을 중심으로 기성시가지의 문제를 도시 내부에서 종합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가지 중심형 도시재생을 들 수 있다.
 주 17.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처음으로 명칭한 Waldheim은 저서 Lafayette Park에서 랜스케이프의 정의를 주거단지의 외부공간이 녹지로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 18. 에코톤은 생태학 용어로 하나의 군집과 다른 군집이 만나는 접경지역을 뜻한다. 이곳에는 생물종의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한다. 문화 에코톤이란 자연과 인공의 하이브리드로 지역으로서 인간의 활동과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더 높이는 "문화복합자연지역"이란 의미를 지닌다.
 주 19. 문화 에코톤이란 생태학에서의 에코톤의 개념을 도시사회에 도입한 개념으로서 하나의 기능 및 용도와 다른 기능 및 용도의 공간 또는

지역이 증점되는 곳으로서 단일 기능 및 용도공간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과 집약적 이용을 보이는 곳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연생태와 도시 기능과의 혼성과 융합을 통해 생태적 진화를 수용하며, 동시에 도시적 이용활동성을 높이는 의미를 지니는 공간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

- 주 20. 도시적 삶 속에 위치하는 문화는 도시가 생산하는 문화이다. 성공하는 도시는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정체성이 있고, 이러한 정체성으로의 도시문화는 삶의 질 형성에 있어 구심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고 다국적 기업의 유치 등을 통해 도시를 경제적으로 부흥 시킨다(석해준과 이만형, 2006).
- 주 21. 이전적지는 군부대, 공장, 폐철도부지 등을, 훼손지는 쓰레기 처리장 등을 말한다.
- 주 22.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형성 맥락에서 높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토지의 생태성 회복이나 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토지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모형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23. 이 문화관에는 건폐율을 최소화로 규제하되, 높이는 자유롭게 함으로써 생태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주거, 상업, 문화, 업무 등과 자연(생태,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등)이 혼합하여 자연과 도시가 혼성되는 문화 예코톤 지역이 되도록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김복한, 박행웅, 오은주 역(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Castell,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 서울: 한울아카데미.
2. 김옥연(2007) 복합용도개발지역 도입을 위한 우리나라 복합용도개발 실태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협동 학술대회(1): 223-2820.
3. 김용성, 이희정(2005) 외국 용도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제도개선방향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 97-109.
4. 맹치영, 조세환(2009) 군부대이전적지의 공인화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7(2): 62-69.
5. 박세훈(2004)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발전국가의 구조변화와 도시개발 정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9(2): 21-33.

6. 박천보, 오덕성(2004)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9(5): 25-38.
7. 배기한(1999) 정보화 사회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배정환(2006) 현대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과주: 도서출판 조경.
9. 서울특별시(2000)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도심부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전개.
10. 석해준, 이만형(2006) 문화산업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 177-185.
11. 신동진(2007) 한국의 도시개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향 및 전망. 토지와 기술 19(3): 86-97.
12. 신기철(1998) 정보네트워크 도시규범: 그 개념과 과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창립기념심포지엄 논문집.
13. 오덕성, 김영환(2004)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모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9(2): 63-76.
14. 오덕성, 박천보(2004) 독일의 도심재생을 위한 재개발사업 특성 고찰: 물리적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4): 203-212.
15. 유강은 역(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Jacobs, Jan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서울: 그린비.
16. 이승주(200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2(3): 131-149.
17. 조세환(2007) 도시재생과 조경정책. 한국조경학회 정책 심포지엄 논문집.
18. 조세환(2008) 도시위터프론트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적 디자인 전략. 한국조경학회 심포지엄 논문집.
19. 최덕철, 김광우, 정창무(2006) 영국도심재생 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 1261-1267.
20. 황재훈, 박천보, 오덕성(2002) 국내 도심재생의 미시적 현상 해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 597-608.
21. Cristina Hill(2005)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학술대회 논문집.
21. Chales Waldheim(2006)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Londo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2. Henrik Valeu(2005) A New future for planning. The Architectural Magazine, Copenhagen.
23. Peter Roberts and Sir Hugh Sykes(2000)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London: SAGE Publication Ltd.
24. Yi-Fu Tuan(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New Jersey: Prentice-Hill.

원 고 접 수 일: 2010년 5월 18일
 심 사 일: 2010년 6월 12일(1차)
 2010년 6월 25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0년 6월 25일
 3인익명 심사필